

日本 체류 韓人系 作家 文學研究*

-百濟・渤海 문학을 중심으로-

이 연 숙**

차 례

- | | |
|------------------|---------------|
| I. 서론 | 2. 발해 작가와 작품 |
| II. 본론 | 3. 백제계 작가와 작품 |
| 1. 百濟・渤海와 일본의 교류 | III. 결론 |

I. 서론

우리의 상대문학은 자료가 영성한 까닭에 그 시대의 문학 상황 전모를 살펴 보기가 무척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백제・발해의 문학은 거의 공백상태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문학사 정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발해 문학의 경우, 김수업은 『배달문학의 길잡이』¹⁾에서 남북국발해문학을 설정만 하고 있다. 조동일은 『국문학통사』에서 김육불의 발해국지장편의 자료를 인용하여 남북국시대 문학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²⁾ 있

* 이 논문은 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자유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한 연구 논문임.

** 동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김수업, 『배달문학의 길잡이』(鮮一文化社, 1986 수정판), pp.34-35.

2) 조동일, 『국문학통사』(지식산업사, 1982), pp.214-229.

으며, 김승찬은 『한국문학의 이해』에서 남북국시대의 문학전개를 논하면서 이에 대한 서술을 시도하고³⁾ 있다. 그러나 자료가 워낙 제한 되어 있는 까닭에 문제제기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의 공백을 메꾸고 문학사 서술이 가능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상대에 있어서 우리와 문화적, 인적 교류가 무척 활발했던 중국·일본 문학과와의 비교를 통한 자료 발굴인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상대 漢詩集인 『懷風藻』·『文華秀麗集』·『經國集』의 자료를 분석하여 일본 체류 한인계 작가를 추출함으로써 백제·발해를 중심으로 한 우리 문학자료를 발굴하여 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우리 작품의 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백 상태로 되어 있던 백제·발해 문학사 서술도 구체적으로 가능해지리라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작품을 토대로 하여 일본 문학과 비교하여 볼 때 동일한 한·한자문화 수신국이면서도 수용한 한자문화 한문학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그 양상이 드러날 것이며 이것은 바로 우리 한문학의 특수성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II. 본 론

일본의 『懷風藻』·『文華秀麗集』·『經國集』은 일본 상대의 漢詩集이다. 『懷風藻』는 751년(天平勝寶 3년)에 편찬된 것으로 찬자는 누구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으나 이것은 『万葉集』과 거의 같은 시기에 편찬된 것이다. 『文華秀麗集』은 818년(弘仁 9년)에 편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經國集』은 827년에 편찬되었다. 이 漢詩集들에는 우리 상대 문학의 공백을 메꾸어 줄 수 있는 백제계 작가, 발해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이 발견된다. 발해의 경우는 이들 한시집이 편찬된 시기에 발해가 존속하고 있었으므로 별 문제가 없겠으나 백제의 경우 이들 한시집이 편찬된 시기가 백제 멸망 후 1세기 내지 1세기 반이 경과하여

3) 김승찬, 『한국문학의 이해』(세종출판사, 1993), pp.35-36.

있으므로 백제 문학적 특성이 어느 정도 보존되어 있는가에 대해 일단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다. 그러나 中西 進이 “한자권 『懷風藻』의 세계에서는 8세기가 되어서도 渡來系의 사람들이 주된 활약자이었던 것”⁴⁾이라고 한 것이나 星野五彦이 귀화인의 범주를 논하면서

귀화인의 渡來의 본격적인 시기 (『日本書記』에 의하면 7세기 중엽으로부터 말엽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보이는 점)와 그들이 『万葉集』에 詠出한 시기 (시대 구분의 제4기의 하한을 750으로 해도 渡來한지 1세기 전후밖에 되지 않는다)가 근접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실체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⁵⁾

라고 논급하고 있듯이 이들 한시집의 한인계 작가들은 『万葉集』과 거의 동시대의 작가들이므로 한국적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보아지므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진다.

그 작가군들은 성격상 다음과 같은 세 부류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우리 나라 사신들과 일본인들과의 唱和詩이다. 일본에 사신으로 갔던 우리 나라 사람들의 시인데 이는 바로 우리 문학사에 정리될 수 있는 작가·작품군이 될 것이므로 무척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한인계로 추정되는 작가들의 작품이다. 이 작가들의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우리 문학에 대한 자료를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는 우리 작가들의 작품은 남아 있지 않지만 일본인들이 창화한 작품이 남아 있는 경우이다. 이 유형에서 일본인들의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한인들의 작품 성격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들 한시집 자체에 관한 연구가 일본에서도 활발하지 않을 뿐더러⁶⁾ 한국쪽에서의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첫째 유형에 관한 것은 小島憲之가 『上代日本文學と中國文學』下⁷⁾에서 한일

4) 中西 進, 『萬葉の時代と風土』(角川書店, 1980), p.114.

5) 星野五彦, 『万葉集における歸化人』, 『國學院雜誌』(1973. 10월호), p.29.

6) 『懷風藻』의 전문 잡지로는 日中比較文學研究會에서 1997년 9월에 『懷風藻研究』 창간호를 낸 데 이어 1998년 11월에 3호가 나온 정도이다.

7) 小島憲之, 『上代日本文學と中國文學 下』(塙書房, 1965).

교류관계를 언급하고 일부 작품을, 전거를 밝히면서 한·중·일의 영향관계를 논하고 있다. 그리고 『韓國漢文學史』⁸⁾에 일부가 소개되어 있는 정도이다.

둘째 유형에 관한 것으로는 小島憲之 校注의 日本古典文學大系『懷風藻 文華秀麗集 本朝文粹』의 이 詩人小傳⁹⁾ 정도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小島憲之는 일부 작가들을 귀화계라고 추정을 하고 있으나 出自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고 단순히 귀화계라고만 한 작가가 많다. 그러나 小島憲之가 귀화계라고 한 작가들의 出自를 살펴보면 韓人系, 특히 백제계로 추정되는 작가들이 있다. 또 小島憲之가 귀화계로 보지 않은 작가들 중에도 한인계라 보아지는 작가들이 상당수 있다.

따라서 이들 유형의 작가군의 出自를 밝히고 작품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상대문학 자료 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들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다만 셋째 유형에 관한 것은, 한인계 작가를 추출하여 내는 것을 중심으로 한 이번의 논문에서는 일단 제외하기로 한다.

1. 百濟·渤海와 일본의 교류

百濟·渤海와 일본과의 교류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백제는 663년 일본군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羅唐聯合軍에 의하여 白村江 싸움에서 크게 패함으로써 결국 멸망하고 만다. 그리고 백제의 왕족과 귀족들은 대거 일본에 건너가 일본의 문화를 주도하며 문학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

8) 李丙晳 외 5인 공저, 『韓國漢文學史』(半島出版社, 1995), pp.52-55.

9) 日本古典文學大系『懷風藻 文華秀麗集 本朝文粹』(岩波書店, 1982, 이하 大系『懷風藻』라略한다). 그리고 이외에 山本信三의 「懷風藻に見えたる日鮮關係の詩詞」, [『조선』159호(1928. 8)]와 澤田總清의 「懷風藻に見えたる韓唐人の二三について」, [『國學院雜誌』(國學院大學, 1931. 12)]와 吉田幸一の 「懷風藻に見えたる韓唐人の二三についてに就いて」, [『國學院雜誌』(國學院大學, 1932. 5)]가 있다. 이 중 澤田總清과 吉田幸一の 논문은『懷風藻』의 大友皇子의 詩序의 沙宅紹明, 塔本春初, 言太尙, 許率母, 木素貴子에 관한 것이므로 실제 작품의 작가들을 논한 것과는 거리가 있다. 또 국내에서는 金聲振의 「『懷風藻』와 『文華秀麗集』을 통해 본 韓日間 文化交流」, [『東洋漢文學研究』 제10집(東洋漢文學會, 1997. 7)]가 있으나 이는 小島憲之가 詩人小傳에서 귀화계로 설명한 자들을 그대로 소개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을 뿐 아무런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백제계 작가들의 작품은 『万葉集』을 비롯하여 『懷風藻』·『文華秀麗集』·『經國集』에 많이 보인다.

발해는 698년 고구려의 유민 大祚榮이 고구려 유민과 말갈인의 힘을 합쳐 건국하여 926년까지 228년간 존속한 나라이다. 발해는 일본과 빈번한 사신의 내왕이 있었다.

『續日本紀』神龜 4년(727년) 12월 29日조에

발해군은 원래 고구려국이다. 淡海朝廷(天智朝)의 7년(668년) 10월, 당나라 장군 이적이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그 후 조공이 오랫동안 끊어졌다. 이에 발해군왕은 寧遠장군 고인의 등 24인을 조정에 파견하였으나, 蝦夷의 당에 표착한 까닭에 인의 이하 16인이 살해되고 수령인 고재덕 등 8인이 겨우 목숨을 건져 내조한 것이었다.¹⁰⁾

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727년 高仁義를 大使로 하는 1차 발해 사신이 일본에 파견된 이후 발해와 일본의 국교가 이루어져 929년(延長 7년) 까지 35회에¹¹⁾ 걸쳐서 발해 사신이 일본에 파견되었다.

발해사들은 일본에 모피나 약초 등 야생품 뿐만 아니라 중국의 서적을 비롯한 선진 문물과 소식을 전해주기도 했으며 일본인들이 중국으로 가는 통로가 되기도 했던 것이다. 이 사신들의 일행은 적게는 20여명에서 많게는 325명에 이르기도 했으나 대개 100여명¹²⁾이었고 짧게는 2개월간, 길게는 약 8개월간 체류하였다. 그리고 발해 사신들이 귀국할 때 대체로 일본 사신이 함께 발해에 파견되었다. 758년(天平寶字二年)9월에 제4차 遣日本 渤海使가 越前國에 도착하여 12월 入京한 이후의 일정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天平寶字 2년 9월 丁亥(18일)에 小野朝臣田守등이 발해에서 돌아왔다. 발해대사인 보국대장군겸 장군 行木底州의 자사겸 兵署少正, 開國公의 양승경 이하 23인이 田守를 수행하여 내조했다. 그래서 越前國에 체재시켰다.

10) 渤海郡者 舊高麗國也 淡海朝廷七年冬十月 唐將李勣伐滅 高麗 其後朝貢久絶矣 至是渤海郡王 遣寧遠將軍高仁義等二十四人朝聘 而着蝦夷境 仁義以下十六人並被殺害 首領齊德等八人僅免死而來 [國史大系『續日本紀』前篇 (吉川弘文館, 1982), p. 111].

11) 崔在錫, 『統一新羅·渤海와 日本의 關係』(一志社, 1993), pp.357-358.

12) 崔在錫, 위의 책, pp.357-358.

- 天平寶字 2년 12월 24일 발해사 양승경 등이 압조했다.
- 天平寶字 3년(759) 봄 정월 戊辰朔(1일)에 大極殿에서 조하를 받았다. 문무백관 및 고구려의 번객들은 규정의 의례에 따라서 각각 배하였다.
- 天平寶字 3년 봄 정월 乙酉(18일), 천황이 궁전의 끝쪽 가까이 나와 고구려(발해)대사 양승경에게 정삼위를, 부사인 양태사에게 종삼위를, 국왕 및 대사 이하에게는 지위에 맞게 녹을 내렸다. 오위 이상의 관인과 고구려의 使人 및 主典 이상을 朝堂에서 향연을 베풀어주고 무대에서 女樂을 배풀었으며 뜰에서는 내교방의 여성의 蹋歌를 추었다. 발해의 使人과 主典 이상인 자도 이를 이었다. 다 끝나자 신분에 따라 각각 眞綿을 내렸다.
- 天平寶字 3년 봄 정월 丙戌(19일) 內射를 행했다. 발해 客人을 불러 역시 마찬가지로 활을 쏘게 했다.
- 天平寶字 3년 2월 癸丑(16일) 양승경 등이 돌아갔다. 고원도 등도 또 이들을 따라 출발하였다.¹³⁾

평균 100여명에 달하는 발해사 일행들이 수개월 일본에 머무는 동안 “일본인들의 발해사에 대한 대접이 君主나 王子 또는 勅使에 대한 대접과 거의 동일”¹⁴⁾하였음을 보면 그들에게 발해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나를 짐작할 수 있다.

2. 발해 작가와 작품

첫째 유형인 우리나라 사신들의 작품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위의 한시집의 편찬된 시기는 백제가 이미 멸망하고 난 뒤이므로 이 경우는

-
- 13) · 天平寶字二年九月 丁亥 小野朝臣田守等至自渤海 渤海大使輔國大將軍兼將軍 行木底州刺史兼兵署少正開國公揚承慶已下廿三人 隨田守來朝 便於越前國安置
- 天平寶字二年十二月 壬戌 渤海使揚承慶等入京
 - 天平寶字三年春正月 戊辰朔 御大極殿受朝 文武百官 及高麗蕃客等 各依儀拜賀
 - 天平寶字三年春正月 乙酉 帝臨軒 授高麗大使揚承慶正三位 副使揚泰師從三位 判官馮方禮從五位下 錄事已下十九人各有差 賜國王及大使已下祿有差 饗五位已上 及蕃客 并主典已上於朝堂 作女樂於舞臺奏內教坊蹋歌於庭 客主典 殿已上次之 之畢賜綿各有差
 - 天平寶字三年春正月 丙戌 內射 喚客亦令同射
 - 天平寶字三年二月 癸丑 揚承慶等歸蕃 高元度等亦相隨而去 (國史大系 『續日本紀』 前篇, pp.256-260.)
- 14) 崔在錫, 앞의 책, p.356.

주로 신라·발해가 해당된다. 그런데 신라의 경우는 창화한 사실이 있었음은 명백하나 신라 사신의 작품은 전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발해 사신의 작품은 『文華秀麗集』과 『經國集』에 다소 남아 있다.

渤海使는 늦가을 9월경부터 초봄에 이르기까지 일본에 수개월 머무는데 그 동안公私의 환대를 받으며 詩酒의 모임에도 참가하였다. 이러한 자리에서 당시의 동아시아 공통의 표현 수단이었던 한시문의 교환이 있었음은 자명한 일인데 그 자료들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다만 758년(天平寶字 2년)에 楊承慶을 大使로 하는 제4차 일본파견 발해사신과 814년(弘仁 5)의 王孝廉을 大使로 하는 제 17차 발해사들이 일본에 가서 詩酒에 참여하여 남긴 작품들이 보인다.

758년 9월에 제4차 遣日本 渤海使를 위하여, 공적인 행사 다음에는 公私의 詩宴이 베풀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이 入京한 이듬해 정월에는

天平寶字三年春正月(759) 甲午(27일) 大保・藤原惠美朝臣押勝이 발해 使人을 田村第에 초대하여 연회를 베풀었다. 천황은 조칙을 내려 內裏의 歌妓를 보내어 眞綿一萬屯을 내렸다. 또 당대의 문인들이 시를 지어 使人에게 보내었는데 부사인 양태사도 시를 지어 창화하였다.¹⁵⁾

라 한 기록에서 보듯이 송별연에서 시가 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후에 대납언 藤原眞楯이 楊承慶을 위하여 宴錢을 베푼 사실이 『續日本紀』 卷第二十七 稱徳天皇(天平神護 2년 3월 12일)條에 다음과 같이 보인다.

勝寶 초년에 종사위상을 받아 參議에 임명되고 이어 信部卿 겸 大宰帥에 임명되었다. 발해사인 양승경이 마침 조정에 의례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眞楯은 송별연을 베풀었다. 승경은 이에 대해 무척 감동하여 칭찬하였다.¹⁶⁾

이런 모임에서 분명히 창화가 있었을 것인데 다른 사람들의 작품은 남아

15) 天平寶字三年春正月 甲午 大保藤原惠美朝臣押勝宴蕃客於田村第 勅賜內裏女樂并綿一萬屯 當代文士賦詩送別 副使楊泰師作詩和之 [『續日本紀』 前篇, p.259]

16) 勝寶初 授從四位上 拜參議 累遷信部卿兼大宰帥 于時 渤海使楊承慶朝禮云畢 欲歸本蕃 眞楯設宴錢焉 承慶甚稱歎之 [『續日本紀』 後篇(吉川弘文館, 1982), p.330]

있지 않으나 副使 楊泰師의 詩는『經國集』卷第十三(詩十二)에 ‘七言 夜聽搗衣一首(雜詠三)’와 ‘五言 奉和紀朝臣公詠雪詩一首(雜詠三)’가 다음과 같이 전한다.

七言 夜聽搗衣一首(雜詠三)

霜天月照夜河明 客子思歸別有情
 厭坐長宵愁欲死 忽聞隣女搗衣聲
 聲來斷續因風至 夜久星低無暫止
 自從別國不相聞 今在他鄉聽相似
 不知綵杵重將輕 不悉青礪平不平
 遙怜體弱多香汗 預識更深勞玉腕
 爲當欲救客衣單 爲復先愁閨閣寒
 雖忘容儀難可問 不知遙意怨無端
 寄異土兮無新識 相同心兮長歎息
 此時獨自閨中聞 此夜誰知明眸縮¹⁷⁾

五言 奉和紀朝臣公詠雪詩一首(雜詠三)

昨夜龍雲上 今朝鶴雪新
 怪看花發樹 不聽鳥驚春
 迴影疑神女 高歌似郢人
 幽蘭難可繼 更欲效而嘖¹⁸⁾

전자는 타국 일본에서 고향에서 들은 것과 같은 다듬어질 하는 소리를 듣고 저절로 생각이 흐트러져 탄식한 가을 밤의 슬픈 시이다. 아마 상륙한 晩秋(758) 越前敦賀 객사에서 지은 것일 것이다. 후자는 눈을 노래한 것이다.

그리고 814년(平安初期 嵯峨天皇 弘仁5년) 9월에 제17차 견일본 발해사 일행

17) 『經國集』卷十三 [『群書類從』第八輯 卷第125(續群書類從完成會, 1977), pp.524-525]. 그런데 小島憲之는 市河寬齋撰의 『日本詩紀』(권6)에 의하면 이 작품의 마지막 구에 이어 다시 ‘憶憶兮心已懸 重聞兮不可穿 將因夢尋聲去 只爲愁多不得眠’의 본문이 계속하고, 三手文庫本에도 같은 본문을 실고 ‘此四句今詩結矣’라고 한 것을 들어 “이 4구를 더하면 雜言體의 시가 되어 題詩의 ‘七言’과는 다르게 된다. 더구나 이시의 전후의 시가 雜言體의 시인 것으로 미루어 보면 오히려 ‘雜言’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七言’은 후세의 잘못인지도 모르겠다. 후고를 기다리면서 日本詩紀의 본문을 따른다.”고 하였다. [上代日本文學と中國文學 下, pp.1495-1496].

18) 『經國集』卷十四 (『群書類從』第八輯 卷第125, p.529).

이 일본에 도착한 기록이 보인다. 渤海國大使 王孝廉, 副使 高景秀, 判官 高英善, 王昇基, 錄事 釋仁貞 일행은 이듬해인 6년(815) 정월 7일 일본 조정에 入朝, 22일 귀국하게 된다. 이들도 일본 領客師들이 베푼 詩酒에 참가하여 시를 창작하는데 그 작품들은 먼저 『文華秀麗集』 卷上에 王孝廉¹⁹⁾의 작품이 宴集에 2수(16·18), 贈答에 3수(39·40·41), 모두 5수, 釋仁貞²⁰⁾의 작품이 宴集에 1수 전한다.

王孝廉(5首)

奉勅陪內宴詩 一首 (16)

海國來朝自遠方 百年一醉謁天裳 日宮座外何攸見 五色雲飛萬歲光

春日對雨 探得情字 一首 (18)

主人開宴在邊廳 客醉如泥等上京 疑是雨師知聖意 甘滋芳潤瀟灑情

在邊亭賦得山花 戲寄兩箇領客使并滋三 一首(39)

芳樹春色色甚明 初開似咲聽無聲 主人每日專攀盡 殘片何時贈客情

和坂領客對月思鄉見贈之作 一首(40)

寂寂朱明夜 團團白月輪 幾山明影微 萬象水天新

妾看生恨 羈情對動神 唯音千里隔 能照兩鄉人

從出雲州書情 寄兩箇勅使 一首(41)

南風海路速歸思 北雁長天引旅情 賴有鏘鏘雙鳳伴 莫愁多日住邊亭²¹⁾

釋仁貞(1首)

七日禁中陪宴詩 一首 (17)

入朝貴國慙下客 七日承恩作上賓 更見鳳聲無妓態 風流變動一國春²²⁾

- 19) 渤海國人. 弘仁 5년(814) 9월 30일, 來朝上貢한 渤海國使 일행 중 大使였다. 이듬해 6년 정월 7일 從三位를 받고, 同月 20일 일행을 위한 향연 때에 音樂 및 祿을 받았다. 그리고 22일 귀국할 때에 親書를 부탁 받았다. 승선하여 귀국 길에 올랐으나 逆風을 만나 5월 18일 難破하여 漂着하였다. 同月 23일 越前國에서 代船을 하였으나 瘡을 알아 갑자기 沒하였다. 正三位를 받았다. 그리고 本書에 작품을 남긴 錄事 釋仁貞 등도 이어서 物故하여 副使 高景秀가 親書 등을 가지고 귀국하였다. (小島憲之, 『懷風藻』, p.512.)
- 20) 渤海國 사람. 弘仁 5년(814) 9월 30일, 來朝한 渤海 國使 일행 중의 錄事. 이듬해 6년 정월 從五位下를 받았다. 이 해 5월 18일 歸國船이 난파하여 大使 王孝廉이 6월 14일 사망하고, 仁貞 등도 이어 物故하였다. 6년 가을까지는 사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小島憲之, 『懷風藻』, p.515].
- 21) 이상 王孝廉의 시는 大系 『懷風藻』, p.210, p.211, 그리고 pp.227-228에 실려 있다.
- 22) 釋仁貞의 시는 大系 『懷風藻』 p.211에 실려 있다.

이들 시는 일본 영객사들과의 화답의 시인데, 814년에 사신으로 일본에 가, 815년 정월 일본 조정에 들어간 왕효렴과 일본 관인을 둘러싼 교류의 일단이지만 이들의 증답의 시가 『文華秀麗集』의 贈答部の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인 것이다.

이 외에 작품은 남아 있지 않지만 『文華秀麗集』의 桑原腹赤의 시에 ‘和渤海入觀副使公賜對龍顏之作一首’(38)로 마무리 보면 814년의 17차 발해사신 중 副使인 高景秀가 815년 1월에 지은 시에 ‘公賜龍顏’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9세기 후반 清和天皇 代에 문장에 뛰어난 발해국 副使 周元伯과 能文家 嶋田忠臣과의 시문창화가 있는 사실은 『類聚國史』194, 天安3년 3월의 기록으로 알 수 있으나²³⁾ 작품은 전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藤原賀能이 입당한 때(延暦24년-805), 가끔 在唐 중의 발해 왕자와 만났는데 그 후 재회할 수 없어 편지로 생각을 전하려고 空海에게 의뢰한 一文 ‘爲藤大使與渤海王子書’가 『性靈集』에 남아 있다.²⁴⁾

그리고 승려 空海가 왕효렴과 교제가 깊었던 것은 弘仁6년 1월 19일, 空海가 왕효렴에게 보낸 것이 『高野雜筆集』에 “辱枉一封書狀及一章新詩 翫之誦之口手不而即胡越 心也傾蓋 一喜一懼 不知爲喻矣”²⁵⁾라고 보인다.

또 사신으로 간 경우는 아니지만 일본에 체류한 고구려계 작가와 그 작품들이 있다. 그런데 고구려계는 바로 발해문학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작가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都良香(미야코노요시카)

小島憲之는

承和 元年(834)?-元慶3년(879). 大和介貞繼의 子. 文華秀麗集 撰者の 一人, 大學頭文學 博士 桑原腹赤은 그의 伯父(弘仁13년(822). 성을 都宿禰로 고쳤다). 貞觀 2년(860) 文章生, 이어 文章得業生이 되고, 安藝權少目이 된다. 동 10년 播磨權大目, 이어 對策에 급제하여, 同12년 少內記, 同14년 掌渤海客使, 이 해, 이름을 言道에서 良香으로 고쳤다. 이듬해 15년 從五位下, 大內記・文

23) 小島憲之, 『上代日本文學と中國文學』下, p.1491.

24) 小島憲之, 위의 책, p.1490.

25) 小島憲之, 위의 책, p.1510.

章博士 등을 역임, 同18년 越前權介를 겸하여, 侍從이 되었다. 元慶3년 沒. 年 46(36이라고도). 그의 문집에 都氏文集(三代實錄「有集六卷」, 內三卷現存)이 있다. 江談抄・十訓抄에 記事가 전한다.²⁶⁾

라고 하였다. 桑原腹赤이 그의 伯父라면, 뒤의 桑原廣田 부분에서 논하겠지만 桑原姓이 고구려계이므로 발해문학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本朝文粹』에 ‘良馬讚’, ‘弁薰猶論’, ‘銚子銘’, ‘富士山記’ 4편이 전한다.

・背奈王行文(세나노키미유키후미)

小島憲之는

背奈公이라고도, 行文은 キョウモン이라고도, 귀화인 背奈福德의 아들. 父 福德은 귀화하여 武藏國高麗郡에 살았으며, 行文은 官人이 되었다. 養老5년(721) 정월 明經第二博士의 임무를 맡았고, 學業의 師範者로서 純・糸・布・鍬 등을 받았는데, 그때 正七位上, 大學助는 이 무렵인가. 神龜 4年(727) 12월 從五位下, 万葉集에 短歌 一首(3836)이 전한다. 62세 沒.²⁷⁾

이라고 하였다. 山本信三은

背奈는 高麗로부터의 歸化系이다. 陸奥의 大守가 되고 또 일본 初産의 황금을 聖武天皇에게 獻上한 것으로 유명한 高麗福信도 本姓은 背奈이다. 行文은 和歌도 万葉集에 남기고 있으며 그 불후의 이름을 남기고 있다.²⁸⁾

고 하여 고구려계로 보았다. 中西 進은 『万葉集』의 高麗朝臣福信을 다루면서

福德의 손자, 背奈行文은 伯父, 武藏國高麗郡의 사람. 본성은 背奈, 나중에 高麗・高倉으로 고침. 延暦 8년에 薨. 그때 81세.²⁹⁾

이라고 하였다. 고구려계이므로 발해작가 속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万葉集』에도 消奈行文(세우나노고우문노마헤츠키미)이라 하여 작품이 전하고 있

26) 大系 『懷風藻』, p.519.

27) 大系 『懷風藻』, p.509.

29) 山本信三, 앞의 논문, p.74.

29) 中西 進, 『万葉集事典』(講談社文庫, 1996, 8刷), p.234.

다. 그의 작품은 『懷風藻』에 ‘五言 秋日於長王宅宴新羅客 一首(賦得風字)(60)’, ‘五言 上巳禊飲 應詔 一首(61)’ 2수가 전한다.

• 桑原廣田(쿠와하라노히로타)

『新撰姓氏錄』左京諸蕃上에 “桑原村主 出自漢高祖七世孫萬德使主也”³⁰⁾라고 하였고 山城國諸蕃에서는 “桑原史 出自狛國人漢胸也”³¹⁾라고 하였다. 또 攝津國諸蕃에는 “桑原史 桑原村主同祖 高麗國人萬德使主之後也”³²⁾라고 하였다. 고구려계이므로 발해문학 속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작품은 『文華秀麗集』에 ‘冷然院各賦一物 得水中影 應製 (125)-雜詠’ 1수가 전한다.

• 桑原腹赤 (쿠와하라노하라아카)

小島憲之는

都腹赤이라고도. 延曆 8년(789)-天仁長壽2년(825). 左京 사람, 本姓은 桑原氏. 弘仁 13년(822), 성을 都宿禰라고 고쳤다. 父는 大和介外從五位下桑原公秋成. 文藻가 있고, 才名이 나타난다. 嵯峨天皇 때, 때때로 연회에서 모시고 詩를 賦하였다. 凌雲集 시대는, 그 목록에 의하면, 文章生相模權博士太初位下. 弘仁 5년(814) 秋, 渤海使의 來朝 때, 副使 高景秀와 唱和하였다.(38). 또 仲雄王等과 文華秀麗集 撰集에 참여하였다. (同集 序에 「從七位下守少內記兼行播磨少目」이라고 하였다). 同11년 정월, 正六位下에서 外從五位가 됨. 腹赤은, 또 朝典에 정통하고, 內裏式編輯에 참여하였다. (內裏式의 序 등에 의하면, 이 무렵 文章博士 從五位下兼行大內記). 同14년(823) 4월 正五位下. 天長2년(825) 7월 7일, 正五位下 文章博士로서 沒. 年37.³³⁾

이라고 하였다. 桑原廣田에서 보았듯이 마찬가지로 고구려계이므로 발해문학 속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文華秀麗集』에 ‘月夜言離(27)’, ‘和渤海入覲副使公賜對龍顏之作一首(38)’, ‘奉和婕妤怨(60)’, ‘奉和聽搗衣(61)’, ‘仰同尚書良右丞銅雀台(82)’, ‘奉和傷野女侍中(84)’, ‘奉和故關聽鷄(118)’, ‘冷然院各賦一物 得曝布水 應製(124)’, ‘和野內史留後看殿前梅之作(131)’, ‘和滋內史秋月歌(138)’

30) 佐伯有清, 『新撰姓氏錄の研究』, 本文篇(吉川弘文館, 1981), p.284.

31) 佐伯有清, 위의 책, p.310.

32) 佐伯有清, 위의 책, p.319.

33) 大系 『懷風藻』, p.513.

10수, 『經國集』 卷第14 詩13 雜詠4에 ‘雜言. 奉和清涼殿畫壁山水歌一首’가 전한다.

• 黃文連備(키후미노소나후)

小島憲之는 “귀화인계 출신. 大寶律令 撰定에 참여하였고, 文武天皇 4년(700) 6월 祿을 받았는데, 그 때 追大壹. 和銅 4년(711) 4월 從五位下가 되고, 후에 主稅頭가 되었으나, 그 年時는 미상. 56세 沒”³⁴⁾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新撰姓氏錄』 山城國諸蕃에 “黃文連 出自高麗國人久斯祁王也”³⁵⁾라고 하였다. 고구려계인 것이다. 그렇다면 발해 작가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懷風藻』에 ‘五言 春日侍宴 一首(57)’가 있다.

3. 백제계 작가와 작품

다음은 백제계로 추정되는 작가와 그들의 작품이다. 그런데 이 유형도 무척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일본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出自를 살펴보면 한인계로 추정되는 작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한인계 작가들이 추출된다면 이들의 작품은 우리 문학으로 보아 우리 문학의 영역을 확대하고 상대문학의 특질을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백제계가 많으므로 백제문학 작품의 발굴에 도움이 되리라 보아진다.

이들 백제계 작가들의 작품은 『懷風藻』·『文華秀麗集』·『經國集』에 많이 보인다.

『懷風藻』에는 序에 “遠自淡海 云暨平都 凡一百二十篇 勒成一卷 作者六十四人”³⁶⁾이라고 하여 64인 120편의 작품을 수록한다고 하였으나 현전하는 것은 판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失名氏를 別人으로 하면 65인 116편³⁷⁾이 전한다.

34) 大系 『懷風藻』, p.508.

35) 佐伯有清, 앞의 책, p. 310.

36) 大系 『懷風藻』, p.62.

37) 大系 『懷風藻』에는 111-114번 작품이 없으므로 116편이 실려 있다.

필자는 『万葉集』의 韓人系 作家들을 논한 바가³⁸⁾ 있는데 이번의 한시집 작가들 중에서 약 20여³⁹⁾은 『万葉集』에 和歌를 남기고 있으므로 더욱더 주목된다.

그런데 64인 중에서 小島憲之 校注『懷風藻 文華秀麗集 本朝文粹』詩人小傳에서 귀화인으로 소개된 작가는 모두 17명이고 이들의 작품수는 모두 27수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釋弁正 :2수, 調忌寸老人:1수, 荊助仁 :1수, 刀利康嗣 :1수, 田辺史百枝 :1수, 山田史三方 :3수, 吉智首 :1수, 黃文連備 :1수, 背奈王行文 :2수, 調忌寸古麻呂 :1수, 刀利宣令 :2수, 百濟公和麻呂 :3수, 吉田連宜 :2수, 麻田陽春 :1수, 伊支連古麻呂 :1수, 民黑人 :2수, 葛井連廣成 :2수

小島憲之는 이 작자들을 단순히 귀화인이라고만 하였다. 그러나 이들 출자 성분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小島憲之가 들지 않은 작자 중에서도 도왜인⁴⁰⁾ 혹은 한인계로 추정될 수 있는 작가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懷風藻』의 작가 중에서 한인계라 추정되는 작가의 출자를 한 사람씩 순서대로 살펴 보기로 하되 한자표기 人名을 우리말 순서에 따라 논하고자 한다.

38) 李妍淑, 「万葉集의 韓人系 作家考」, 『韓國文學論叢』 (한국문화회, 1992.)

39) 星野五彦은 “万葉集과 懷風藻의 兩書에 이름이 보이는 20명의 작자에, 和歌에 대해 한시가 엄격하게 一線을 긋고 존재함을 생각할 때 그들 귀화계인 쪽이 시와 노래 사이에 融和性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 흥미롭다.”(星野五彦, 앞의 논문, p.33)고 하였고, 澤田總清은 “万葉集의 作者가 18인데 38편의 시가 있다. 즉 川島皇子・大津皇子・文武天皇・山前王・大伴旅人・境部王・春日藏老・背奈行文・刀利宣令・長屋王・安倍廣庭・吉田宜・藤原房前・藤原宇合・藤原弟麿・麻田陽春・石上乙麻呂・葛井廣成이 그들이다.”〔澤田總清, 『懷風藻註釋』(大岡山書店, 1933.) p.411-412.〕고 하였다.

40) 일본인 연구자들은 대부분이 ‘도왜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국내 학자들도 이를 따르고 있으나, 필자는 이 개념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아 우리 입장에서 ‘도왜인’이란 용어를 사용한 바 있다.(이연숙, 앞의 논문 참조)

• 葛井連廣成(후지이노히로나리)

小島憲之는 “처음 성은 白猪史(시라이노후히토). 귀화인제. 養老3년(719) 閏 7월, 大外記從六位下로 遣新羅使에 임명되고, 同4년 5월 葛井連의 성을 받았다.”⁴¹⁾고 하였다. 『万葉集』에도 그의 작품이 실려 있는데 稻岡耕二는 그의 형으로 추정되는 葛井連大成(후지이노모라지오호나리)를 논하면서 “葛井大夫라고도 함. 葛井氏は 百濟系渡來人”⁴²⁾이라고 하여 백제계로 보았다. 『万葉集歌人事典』에서도⁴³⁾ 그리고 高橋庄次⁴⁴⁾와 星野五彦⁴⁵⁾도 백제계로 보았다. 『新撰姓氏錄』右京諸蕃下に “葛井宿祢 菅野朝臣同祖”⁴⁶⁾라 하였고, 바로 그 앞의 ‘菅野朝臣’에서 “出自百濟國都慕王十世孫 貴須王也”⁴⁷⁾라고 하였으므로 宿祢姓의 前의 葛井連도 역시 백제계이다. 葛井連의 처음 姓인 白猪史의 氏姓에 대하여 『新撰姓氏錄』未定雜姓・河内國에서는 “大友史 百濟國人白猪奈世之後也”⁴⁸⁾라고 하였으므로 葛井氏が 백제계의 씨족인 것은 명백하다고 하겠다. 그의 작품은 『懷風藻』에 ‘五言 奉和藤太政佳野之作 一首(仍用前韻四字)(119)’, ‘五言 月夜坐河濱 一絶(120)’ 2수, 『經國集』卷第二十에 對策文 2수⁴⁹⁾가 전한다.

• 葛井諸會(후지이노모라지모로아이)

天平 7년(735) 송사관계를 잘 처리하지 않은 탓으로 죄를 입었으나 곧 사면되었으며 그때 右大史正六位下였다⁵⁰⁾고 한다. 같은 葛井姓이므로 백제계이다. 『万葉集』에도 작품이 전하는데 『經國集』卷第二十에 和同四年 三月五日의 對策文 2수가 실려 있다.

41) 大系 『懷風藻』, p.510.

42) 稻岡耕二, 『万葉集事典』(學燈社, 1993), p.220.

43) 小島憲之・五味智英・犬養 孝 編集顧問, 『万葉集歌人事典』(雄山閣, 1982), p.276.

44) 高橋庄次, 「遣新羅使歌의 百濟系의 歌主と八幡神(上)」, 『上代文學』 제66호(上代文學會, 1991. 4), p.47.

45) 星野五彦, 앞의 논문, p.29.

46) 佐伯有清, 앞의 책, p.298.

47) 佐伯有清, 위의 책, p.298.

48) 佐伯有清, 위의 책, p.346.

49) 목록에는 2수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三首 전하고 있다.

50) 中西 進, 『万葉集事典』, p.272.

• 巨勢識人(코세노사키히토)

巨勢朝臣은, 石川朝臣과 同祖로 弘仁 14년(823) 2월 從五位上⁵¹⁾이었다. 石川朝臣과 同祖라고 하였는데 뒤의 石川石足에서 논하듯이 石川姓이 백제계이므로 巨勢朝臣도 백제계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작품은 『文華秀麗集』에 20수⁵²⁾, 그리고 『經國集』 卷第十(詩九)에 '從五位上巨勢朝臣識人 一首(樂府)', 卷第十三 詩十二 雜言에 '九日林亭賦得山亭明月秋應太上天皇製一首(雜詠三)'가 전한다.

• 高向朝臣諸足(타카무코노아소미모로타리)

天平 5년(733) 3월 外從五位下⁵³⁾였다. 山本信三은 “高向은 支那種(阿知使主의 후예)이라고 말해지지만, 지금의 黃海道 沙里院 지방에 살고 있었던 자로, 準朝鮮系의 歸化人이다.”⁵⁴⁾고 하였다. 그런데 『新撰姓氏錄』 右京皇別上에 “高向朝臣 石川朝臣 武內宿禰六世孫猪子臣之後也 日本紀合”⁵⁵⁾이라고 하였다. 石川朝臣과 동조라면 백제계가 될 것이다. 그의 작품은 『懷風藻』에 ‘五言. 從駕吉野宮. 一首(102)’가 1수 전한다.

• 錦部彦公(니시코리베노히코기미)

傳未詳인데 『新撰姓氏錄』 河內國諸蕃에 “錦部連 三善宿禰同祖 百濟國速古大王之後也”⁵⁶⁾라 하였으므로 백제계임을 알 수 있다. 그의 작품은 『文華秀麗集』에 ‘題光上人山院 (80)-梵門’ 1수와 『經國集』 卷第十四 詩十三 雜詠四에 ‘七言. 看宮人翫扇一首’가 전한다.

51) 大系 『懷風藻』, pp.513-514.

52) 『文華秀麗集』에 전하는 작품은 ‘奉和春日江亭閑望(6)’, ‘嵯峨院納涼 探得歸字 應製(10)’, ‘敬和左神策大將軍春日 閑院錢美州藤大守甲州藤判官之作(23)’, ‘春日錢野柱史奉使在間渤海客 一首(24)’, ‘春日別原掾赴任(25)’, ‘秋日別友人(26)’, ‘奉和春閣(53)’, ‘奉和春情(54)’, ‘和伴姬秋夜閑情(55)’, ‘奉和長門怨(57)’, ‘奉和婕妤怨(59)’, ‘奉和折楊柳(70)’, ‘和澄上人臥病述懷之作(78)’, ‘奉和侍中翁主挽歌詞(91-92)’, ‘春日侍神泉苑, 賦得春月 應製(128)’, ‘和野柱史觀鬪百草, 簡明執之作(130)’, ‘神泉苑 九日落葉篇 應製(140)’, ‘和滋內史奉使遠行觀野燒之作(141)’, ‘琴興(143)’이다.

53) 大系 『懷風藻』, p.509.

54) 山本信三, 앞의 논문, p.70.

55) 佐伯有清, 앞의 책, p.174.

56) 佐伯有清, 위의 책, p.326.

・紀朝臣古麻呂(키노아소미마로)

紀朝臣麻呂(키노아소미마로)의 동생으로 백제계이다. 小島憲之는 “大納言紀大人の子. 慶雲 2년(705) 11월, 新羅使를 맞기 위하여 諸國의 騎兵을 徵發하고, 그 長인 騎兵大將軍이 된다.(正五位上) (中略) 59세沒”⁵⁷⁾이라고 하였다. 金達壽는

紀氏は 무엇일까 하는 문제입니다만, 특히, 和歌山縣은 紀伊國이라는 접니다. 간단히 말하면 百濟에 八大姓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木氏, 후에 木(笏)라고 하는 複姓으로도 됩니다만, 이 八大姓의 하나인 木氏族이라고 하는 것이 일찍부터 紀伊에 渡來하여 있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紀伊의 古墳 出土品에 보이는 조선적인 것, 그 조선 문화는 그들과 함께 도래하여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⁵⁸⁾

라고 하여 백제계로 보았다. 백제계이다. 그의 작품은 『懷風藻』에 ‘望雪(22)’, ‘秋宴. 得聲清驚情四字(23)’ 2수가 전한다.

・紀朝臣男人(키노아소미오비토)

雄人이라고도 하며 天武天皇 10년(682)-天平 10년(738)까지 생존한 자로 麻呂의 子⁵⁹⁾인데 紀姓이므로 역시 백제계이다. 그의 작품은 『懷風藻』에 ‘遊吉野川(72)’, ‘扈從吉野宮(73)’, ‘七夕(74)’ 3수가 전한다.

・紀朝臣麻呂(키노아소미마로)

紀男人的의 父이고, 古麻呂의 兄이며 持統天皇 7년(693) 6월 直廣肆. 大寶 원년(701) 3월 從三位였다. 大納言으로 昇進. 慶雲 2년(705) 7월 沒. 年47로 그때 大納言正三位.⁶⁰⁾이었다. 같은 紀姓이므로 백제계이다. 그의 작품은 『懷風藻』에 ‘春日. 應詔(14)’ 1수가 전한다.

57) 大系 『懷風藻』, p.508.

58) 座談會 司馬遼太郎 上田正昭 金達壽編, 『日本の渡來文化』(中央公論社 中央文庫, 1982), p.119.

59) 大系 『懷風藻』, p.508.

60) 大系 『懷風藻』, p.508.

• 紀朝臣末茂(키노아소미수에시게)

天長 2년(825) 6월, 紀長田麻呂卒의 條에, ‘中判事正六位上末茂之孫云云’이라고 한 것과, 『懷風藻』 目錄에 ‘判事從七位下’라고 보일 뿐인데 31세 沒⁶¹⁾하였다. 紀朝臣古麻呂와 마찬가지로 紀姓이므로 백제계가 될 것이다. 그의 작품은 『懷風藻』에 ‘臨水觀魚(25)’ 1수가 전한다.

• 紀朝臣末守(키노아소미수에모리)

紀氏系圖에 의하면, 麻呂의 玄孫, 眞人の 子. 天長 2년(825) 정월에 正六位上에서 從五位下였는데⁶²⁾ 앞의 紀末茂 등에서 보았듯이 백제계일 것이다. 그의 작품은 『文華秀麗集』에 ‘早春別阿州伴掾赴任 (28)-餞別’ 1수가 전한다.

• 吉田連宜(요시다노브라지요로시)

小島憲之는

先祖는 任那에서 吉氏를 칭하고 있었으나, 귀화하여 대대로 의술을 전하였는데, 宜는 그 자손. 처음에 중이 되어 惠俊이라고 하였으나, 文武天皇 4년(700) 遷俗, 성을 吉, 이름을 宜로 받고, 務廣肆를 받아, 의술에 종사. 和銅 7년(714) 정월 從五位下. 養老 5년(721) 정월, 醫術의 사범자이었으므로, 純・糸・布・錦를 받았는데, 그때 從五位上. 神龜 원년(724) 5월 吉田連의 성을 받았다. 70세 沒.⁶³⁾

이라고 하여 任那系로 보았다. 그러나 稻岡耕二는 “키치다라고도 함. 百濟출신의 醫術의, 吉氏(續後紀, 文德實錄)의 出. 원래 僧惠俊, 文武 4년(700) 8월, 칙명에 의해 환속. 吉宜의 姓名을 받고 의술에 종사. 和銅 7년(714) 正月 山上億良과 함께 從五下. 神龜 원년(724) 5월 姓 吉田連을 내림(續紀)⁶⁴⁾”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中西 進은, “『日本書紀』는 白村江 이후에 일본에 도래한 사람들로서 吉大尙, 沙門詠, 答本春初, 四比忠勇, 余自信, 角福牟, 億禮福留, 沙宅紹明, 許率母, 그의

61) 大系 『懷風藻』, p.508.

62) 大系 『懷風藻』, p.513.

63) 大系 『懷風藻』, pp.511-512.

64) 稻岡耕二, 앞의 책, p.234.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⁶⁵⁾고 하고는 吉田宜를 吉大尙의 후예라고 하였다. 上田正昭도 “吉田連宜는 百濟로부터의 渡來人이었다.”⁶⁶⁾라고 하였다. 백제계인 것이다. 『萬葉集』에도 그의 작품이 있으며 『懷風藻』에 ‘五言 秋日於長王宅宴新羅客 一首(賦得秋字)(79)’, ‘五言 從駕吉野宮 一首(80)’ 2수가 전한다.

• 吉智首(키치노치슈)

吉田連宜와 동족이며 귀화인계로 養老 3년(719) 정월 從五位下에 오르고 神龜 원년(724) 5월, 宜와 함께 吉田連의 성을 받았으며 宜와 함께 대대로 醫術로 조정에 종사하였는데 (中略) 68세로 沒⁶⁷⁾하였다. 吉田連宜에서 보았듯이 백제계이다. 그의 작품으로는 『懷風藻』에 ‘五言 七夕 一首(56)’가 전한다.

• 丹墀真人廣成(타지히노마히토히로나리)

小島憲之는 “多治比라고도. 左大臣正二位島의 第五子. 和銅 원년(708) 정월 從五位下(中略)天平 10년 정월 式部卿을 겸하고, 이듬해 11년(739) 4월 沒⁶⁸⁾이라고 하였다. 丹墀, 丹比, 多治比가 모두 타지히로 발음되어 같은 氏姓이라고 보아지는데, 『萬葉集』에 보면, 丹比, 多治比는 지명을 딴 것이라 생각된다. 丹比郡에 백제계의 도래인이 많이 살고 있었음을 생각하면 丹墀는 백제계라 추정된다. 그의 작품은 『懷風藻』에 ‘遊吉野山(99)’, ‘吉野之作(100)’, ‘述懷(101)’ 3수가 전한다.

• 大石王(오오이시노오오키미)

文武天皇 3년(699) 7월, 弓削皇子 死去 때, 喪事를 監護하고, 同年 10월 山科山陵修造使가 된다. 그리고 天平 11년(739) 정월 正四位下였으며, 『懷風藻』에 ‘從四位下播磨守’라고 하였는데, 그 補任年月은 不明이며 57세로 沒⁶⁹⁾하였다.

65) 中西 進, 『萬葉の時代と風土』, p.107,

66) 上田正昭, 『萬葉の歌と渡來人』, 『國文學 解釋と教材の研究』 제23권(學燈社, 1978. 4), p.30.

67) 大系 『懷風藻』, p.509.

68) 大系 『懷風藻』, p.509.

69) 大系 『懷風藻』, p.506.

『万葉集』의 작가 중에 大石養麻呂가 있는데 이 작가에 대하여 星野五彦은 백제 아니면 漢 귀화인⁷⁰⁾이라고 하였고, 高橋庄次는

『姓氏錄』에 「大石 高丘宿禰同祖 廣陵高穆之後也」(左京諸蕃下)라고 하였는데 大石氏와 同祖인 高丘宿禰에 대해서는 「高丘宿禰 出自百濟國公族 大夫高侯之後 廣陵高穆也」(河內國諸蕃)이라고 하였으므로 백제계일 것이다. 또 「大石橋立 出自百濟國人 庭姓蚊尔也」(右京諸蕃下), 「大石林 林連同祖 百濟國人 木貴之後也」(同)라고도 하였으므로 백제계의 씨족인 것은 틀림이 없다.⁷¹⁾

고 하였다. 같은 大石 姓이므로 大石王은 백제계일 것이다. 그의 작품은 『懷風藻』에 '侍宴 應詔(37)' 1수가 전한다.

・大神朝臣高市麻呂(오호미와노아소미타케치마로)

小島憲之는 「齊明天皇 3년(657)-慶雲 3년(706). 壬申의 亂(672)의 공신. 天武天皇 12년(684) 大神的 성을 받았다.⁷²⁾」고 하였다. 『万葉集』에도 그의 작품이 보인다. 『万葉集』의 大神朝臣高市麻呂, 大神女郎 등을 다루면서 星野五彦은 귀화인⁷³⁾으로 보았고, 山本信三은 韓族 또는 準韓族으로 보았다.⁷⁴⁾ 그리고 山本信三은 또

『万葉集』에 神社라고 하는 사람의 노래가 2수 실려 있다. 그도 朝鮮으로부터 건너온 歸化系의 사람이다. 社와 許素는 借音字로 모두다 コソ를 옮긴 것이라고 생각된다. 貴子は 吉子라고도 쓰며, 君을 의미한다. 王(國王)과 함께 존칭을 나타내는 조선의 古語이다. 達率도 그럴 것이다. 素字가 붙어 있는 이름은 西素 卓素등 應神天皇 때 王仁과 함께 일본에 건너간 사람의 이름에도 보이고 있다.⁷⁵⁾

라고 하였다. 백제계로부터의 神社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의 작품은 『懷風藻』에 '五言 從駕 應詔一首(18)'가 전한다.

70) 星野五彦, 앞의 논문, p.30.

71) 高橋庄次, 앞의 논문, P.46.

72) 大系 『懷風藻』, p.507.

73) 星野五彦, 앞의 논문, p.30.

74) 山本信三, 「万葉集に見えたる日鮮關係の詞藻」, 『朝鮮』(大正14년 12월 116호), p.75.

75) 山本信三, 「懷風藻に見えたる日鮮關係の詩詞」, pp.66-67.

• 大神朝臣安麻呂(오호미와노아소미야스마로)

天智天皇 2년(663)부터 和銅 7년(714)까지 생존한 자로 高市麻呂의 弟인데 持統天皇 3년(689) 2월 判事있으며, 和銅 7년 정월 52세로 沒⁷⁶⁾하였다. 大神朝臣高市麻呂가 백제계이므로 그의 동생인 大神朝臣安麻呂도 백제계가 된다. 그의 작품은 『懷風藻』에 '山齋言志(39)' 1수가 전한다.

• 大神直虫麻呂(오호미와노무시마로)

생몰연대는 알 수 없으나 같은 大神氏 이므로 백제계라 할 것이다. 그의 작품은 『經國集』 卷第二十에 天平 5년 7월 29일의 大神直虫麻呂對策文 2수(策下)가 전한다.

• 大津連首(오오츠노프라지오비토)

小島憲之는 “學問僧으로서 신라에 건너가, 慶雲 4년(707) 5월 歸朝한 후 和銅 7년(714)에 환속하여, 성을 大津連, 名을 意毗等이라고 칭하였는데 養老 5년(721) 정월, 医卜方術에 공이 있어 상으로 施·糸·布·鍬 등을 받았다.”⁷⁷⁾고 하였다. 中西 進은

津宿禰는 백제 都慕王의 후예(右京諸蕃下), 津史는 船史牛가 부여되고 있으므로 (紀), 船·葛井 등과 一祖라 생각되는 것이 津連이다⁷⁸⁾

고 하였다. 津이 백제계라면 大津도 같은 津姓으로 백제계일 것이다. 그의 작품은 『懷風藻』에 '和藤原大政遊吉野川之作(83)', '春日於左僕射長王宅宴(84)' 2수 전한다.

• 刀利康嗣(토리노야수츠구)

山本信三은 “法隆寺 金堂의 世界的珍寶인 釋迦三尊을 만든 鞍作鳥는 司馬達等の 孫으로 보통 그를 鳥佛師라고 한다. トリ가 부르는데 익숙해지자 마침

76) 大系 『懷風藻』, p.507.

77) 大系 『懷風藻』, p.506.

78) 中西 進, 「憶良 渡來人論 補遺」, 『上代文學』 제36호(1975. 7), p.110.

내 姓으로 바뀐 것일 것이다. 刀利, 鳥, 모두 トリ이다.⁷⁹⁾고 하였다. 『万葉集』에 그의 아들 土理宣令이 있는데 『万葉集歌人事典』에서는 “백제의 귀화계 씨족인가?”⁸⁰⁾라고 하였다. 같은 姓이므로 백제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의 작품은 『懷風藻』에 ‘五言 侍宴 一首(35)’ 1수가 전한다.

• 刀利宣令(토리노센토오)

小島憲之는

刀利・土理라고도, 宣令은 ノブヨシ・センリョウ라고도, 귀화인계. 養老 5년(721) 정월 東宮(聖武)에 侍하였는데, 그때 從七位下. 本書의 목록에는 「正六位上伊予掾」이라고 하였는데, 養老 5년 이전의 일은 기록에 없다. 万葉集에 短歌 2수(313・1470), 經國集에 和銅 4년(711) 3월 5일자 對策文 2篇이 전한다. 59세(혹은 57세)沒.⁸¹⁾

이라고 하였다. 앞의 刀利康嗣와 같은 姓氏이므로 백제계임을 알 수 있다. 그의 작품은 『懷風藻』에 ‘五言 秋日於長王宅宴新羅客 一首(賦得稀字)(63)’, ‘五言 賀五八年 一首(64)’ 2수, 『經國集』 卷第二十에 和同 4년(711) 3월 5일의 刀利宣令對策文 二首(策下)가 전한다.

• 麻田連陽春(아사다노브라지야수)

小島憲之는

歸化人 答本氏の 출신. 처음에 答本陽春(正八位上)이라 칭했으나, 神龜 원년(724) 5월 麻田連의 성을 받았다. 天平 2년(730) 겨울, 大宰府에서 大宰大典, 同 3년 3월 從六位上에 올랐다. 同 11년 정월 外從五位下. 本書에 보이는 「石見守」의 任官 年月은 미상. 万葉集에 短歌 4수(569・570・884・885)가 있으며, 卷5의 유력한 撰者の 한사람으로 보는 설이 있다. 56歲沒.⁸²⁾

이라고 하였다. 澤田總清은

79) 山本信三, 「懷風藻に見えたる日鮮關係の詩詞」, p.69.

80) 小島憲之・五味智英・犬養孝 編集顧問, 「万葉集歌人事典」, pp.247-248.

81) 大系 「懷風藻」, p.509-510.

82) 大系 「懷風藻」, p.505.

百濟國 朝鮮王准의 후예이다. 神龜中 正八位에 임명되고 姓 麻田連을 받았다. 寶字 원년에 藥方이 되고, 天平 11년에 正六位上이 되고, 石見守에 임명되고 外從五位下가 되었다. 陽春은 萬葉 작자의 한 사람으로 和歌를 잘 지었으므로 一世에 알려져 있다.⁸³⁾

라고 하여 백제계로 보았다. 上田正昭⁸⁴⁾와 中西 進⁸⁵⁾도 백제계로 보았다.

『新撰姓氏錄』 右京諸蕃下를 보면 “麻田連 出自百濟國朝鮮瓦准也”⁸⁶⁾라고 하였다. 백제계이다. 『萬葉集』에도 그의 작품이 실려 있다. 『懷風藻』에 ‘五言 和 藤江守詠裨觀山先考之舊禪處柳樹之作 一首(105)’ 1수가 전한다.

• 民忌寸黑人(타미노이마키쿠로히토)

小島憲之는

귀화인계의 사람. 本書 목록에 「隱士民忌寸黑人」이라고 하였다. 姓氏錄 逸文에 「山本直者是民忌寸...伊勢國奄藝郡民忌寸...等廿五姓之祖也」라고 하였고, 또 正倉院 文書에 「播磨國大掾從六位上民忌寸黑人」이라고 하였는데, 이에 해당한다. 「隱士」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도, 또 그 작품 내용으로 보아서도, 官途에서 떠나 은둔해 있었던 것이라 생각된다.⁸⁷⁾

라고 하였다. 山本信三은 出自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한인계 작가들 끝에 나열하여 놓았으므로 한인계로 본 것⁸⁸⁾같다. 그런데 『新撰姓氏錄』 逸文에

姓氏錄曰 阿智使主男都賀使主 大泊瀬稚武天皇(謚雄略)御世 改使主賜直姓子孫因爲姓 男山本直是兄腹祖也(本名山猪) 次志努(一名成努)直 是中腹祖也 次爾波伎直 是弟腹祖也 姓氏錄曰 山本直者 是民忌寸(後略)⁸⁹⁾

이라 한 것으로 보아 백제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懷風藻』에 ‘五言 幽棲 一首

83) 澤田總清, 앞의 책, p.382.

84) 上田正昭, 앞의 논문, p.30.

85) 中西 進, 「萬葉集事典」, p.193.

86) 佐伯有清, 앞의 책, p.358.

87) 大系 『懷風藻』, p.509.

88) 山本信三, 「懷風藻に見えたる日鮮關係の詩詞」, p.70.

89) 佐伯有清, 앞의 책, p.358.

(108), '五言 獨坐山中 一首(109)' 2수가 전한다.

• 百濟公和麻呂(쿠다라노야마토마로)

小島憲之는 귀화인계⁹⁰⁾라고만 하였고 澤田總清은 “조상은 백제 사람이다. 慶雲 年中에 시험을 보아 對策하였다. 正六位上에 임명되어 但馬守에 임명되었다. 卒年⁵⁶”⁹¹⁾이라고 하였다. 『新撰姓氏錄』和泉國諸蕃을 보면 “百濟公 出自百濟國酒王也”⁹²⁾라고 하였다. 백제계임을 알 수 있다. 『懷風藻』에 ‘五言 初春於左僕射長王宅燕 一首(75)’, ‘五言 七夕 一首(76)’, ‘五言 秋日於長王宅宴新羅客 一首(賦得時字)(77)’ 3수, 『經國集』卷第二十에 慶雲 4년 9월 8일의 百濟君倭麻呂對策文二首(策下)가 전한다.

• 山田史三方(야마다노후히토미카타)

小島憲之는

御方・御形 등으로도. 귀화인계. 처음 출가하여 신라에서 배우고, 三方沙彌라고 칭하였으나, 후에 환속하여 山田史三方이라고 칭하였다. 持統天皇 6년(692) 10월 務廣肆. 慶雲 4년(707) 4월, 그 학술로 布・鍬・塩・穀 등을 상으로 받았는데, 그때 正六位下. 和銅 3년(710) 정월 從五位下, 이어 同年 4월 周防守. 養老 4년(720) 정월 從五位上. 同5년 정월, 동궁(聖武)에 侍하고, 또 학술의 사범으로서, 施・糸・布・鍬 등을 받았는데, 그때 文章博士. 同 6년 4월, 周防守在任中, 관리하고 있던 官物을 훔친 죄로 除名 免官되었으나, 이전의 학문의 공으로 인해 특히 은총을 입어 용서받았다. 本書에 「大學頭」라고 하였는데, 養老5년 경 大學頭이었던 것일까. 万葉集에 長歌 1수(4227)・短歌 6수(123・125・508・1027・2315・4228)이 있다.⁹³⁾

고 하였다.

『万葉集』에도 山田史君麻呂(야마다노후히토키미마로), 山田史土麻呂(야마다노후히토히지마로), 山田御母(야마다노미오모) 등이 보이나 모두 도래계라고만 하였을 뿐 그 출자를 밝히지는 않고 있다. 그런데 『新撰姓氏錄』右京諸蕃 上에

90) 大系 『懷風藻』, p.508.

91) 澤田總清, 앞의 책, p.377.

92) 佐伯有清, 앞의 책, p.330.

93) 大系 『懷風藻』, p.511.

서는 “山田宿禰 出自周靈王太子晉也”⁹⁴⁾라 하였고, 河內國諸蕃에서는 山田連, 山田造를 모두 “山田宿禰同祖 忠意之後也”⁹⁵⁾라고 하였다. 모두 漢系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未定雜姓 河內國에서는 “山田造 新羅國天佐疑利命之後也”⁹⁶⁾라고 하였다. 신라계라고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養老 5년(721) 정월 동궁(聖武)에 侍하고, 또 학술의 사범으로서, 絃·糸·布·鍛 등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당시의 동궁(聖武)에 侍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백제계 도왜인이고, 또 『新撰姓氏錄』에서 漢계라고 되어 있지만 그 漢系에는 백제계도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백제계가 아닐까 한다. 『懷風藻』에 ‘五言 秋日於長王宅宴新羅客 一首(并序)(52)’, ‘五言 七夕 一首(53)’, ‘五言 三月三日曲水宴 一首(54)’ 3수가 전한다.

• 上毛野朝臣類人(카미즈케노노아소미에히토)

小島憲之는 “天平神護 2년(766)~흥인12년(821). 上毛野氏は 下毛野朝臣과 同祖. 崇神天皇의 皇子 豐城入彦命五世의 孫 多奇波世君의 後裔. 天平勝寶 2년(750) 다시 上毛野公을 내림. 弘仁 12년 8월 18일 沒. 年 56”⁹⁷⁾이라고 하였다. 『新撰姓氏錄』左京皇別下에 “上毛野朝臣 下毛野朝臣同祖(中略) 孫斯羅 諡皇極御世 賜河內山下田 以解文書 爲田邊史(後略)”⁹⁸⁾라 하였다. 그런데 田邊史는 田邊百枝에서 보듯이 田邊이 백제계이므로 백제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의 작품은 『文華秀麗集』에 ‘奉和代美人殿前夜合詠之什(122)’ 1수와 『經國集』 卷第十一(詩十)에 ‘毛類人春庭友人見過 一首(雜詠一)’가 전한다.

• 釋道融(샤크도우유우)

釋道融은 傳記에

釋道融者 俗姓波多氏 少遊槐市 博學多才 特善屬文 性殊端直 昔丁母憂 寄

94) 佐伯有清, 앞의 책, p.293.

95) 佐伯有清, 위의 책, p.321.

96) 佐伯有清, 위의 책, p.350.

97) 大系 『懷風藻』, p.513.

98) 佐伯有清, 앞의 책, p.168.

住山寺 偶見法華經慨然歎曰 我久貧苦 未見寶珠之在衣中 周孔糟粕 安足以留意 遂脫俗累 落飾出家 精進苦行 留心戒律 時有宣律師六帖鈔 辭意隱密 當時徒絕無披覽 法師周觀 未踰浹辰 數講莫不洞達 世讀此書 從融始也 時皇后嘉之 施絲帛三百匹 法師曰 我爲菩提 修法施耳 因茲望報 市井之事耳 遂策杖而遁⁹⁹⁾

라고 하였다. 그런데 『新撰姓氏錄』大和國諸蕃에서는 “波多造 出自百濟國人佐布利智使主也”¹⁰⁰⁾라고 하였다. 波多造가 百濟國人佐布利智使主에서 비롯되었으므로 백제계라 할 수 있다. 『懷風藻』에 5수가 전한다고 하였는데 실제로는 ‘我所思兮在無漏 (110)’만 전하고 111-114는 缺로 되어 있다.

• 釋道慈(샤크도우지)

小島憲之는

俗姓額田氏. 大寶원년(701) 제8차 遣唐使와 함께 入唐(大寶二年), 養老2년(718) 12월 歸朝. 同 3년 11월, 神觀法師와 함께 그 學德으로 食封 50戶의 상을 받음. 天平元年(729) 10월 律師, 同 8년 2월 扶翼童子 6인을 내림. 同 9년 4월, 大安寺에 거주하며 大般若經을 강하고, 布施를 청하여 허가받음. 同年 10월, 大極殿에 金光明最勝王經을 講하다. 同16년(744) 10월 沒. 年70有余.¹⁰¹⁾

라고 하였다. 『萬葉集』의 작가 額田王을 논하면서 土橋 寬은 額田王의 父 鏡王을 “近江의 鏡里에 거주하고 있는 백제계 왕족”¹⁰²⁾이라고 하였다. 中西進은 “鏡谷은 鏡山の 東麓, 가까이는 須惠의 지명이 있고 陶人의 渡來集團이 살았던 곳이다. 天日槍이라고 하는 것은 新羅系의 渡來者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조상신이었다”¹⁰³⁾고 하여 신라계로 보았다. 『新撰姓氏錄』大和國諸蕃에 “額田村主 出自吳國人天國古也”¹⁰⁴⁾라 하였는데 吳國은 백제를 가리키고 있으므로 백제계로 보고자 한다. 그의 작품은 『懷風藻』에 ‘在唐奉本國皇太子(103)’, ‘初春在竹溪山寺於長王宅宴追致辭 并序(104)’ 2수가 전한다.

99) 大系 『懷風藻』, p.174.

100) 佐伯有清, 위의 책, p.313.

101) 大系 『懷風藻』, p.509.

102) 土橋 寬, 『萬葉開眼』上, NHK ブックス 313(日本放送出版協會, 1981), p.81.

103) 中西 進, 『萬葉の時代と風土』, pp. 110-111.

104) 佐伯有清, 앞의 책, p.313.

• 釋辨正(샤크벤쇼우)

釋弁正은 傳記에

辨正法師者 俗姓秦氏 性滑稽 善談論 少年出家 頗洪玄學 太寶年中 遣學唐國 時遇李隆基龍潛之日 以善圍碁 屢見賞遇 有子朝慶朝元 法師及慶在唐死 元歸本朝 仕至大夫 天平年中 拜入唐判官 到大唐見天子 天子以其父故 特優詔厚賞賜 還至本朝 尋卒¹⁰⁵⁾

이라고 하였듯이 俗姓은 秦氏로 文武天皇의 大寶 연간(701-704)에 渡唐해서 학문을 배우고 바둑이 뛰어났으므로 현종에게는 상을 많이 받고 그곳에서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 小島憲之의 詩人小傳에서는 귀화인¹⁰⁶⁾이라고만 하였는데 『新撰姓氏錄』을 보면 秦은 漢의 귀화인으로 되어 있다. 또 井上秀雄은, “秦氏의 出自을 바다에 접한 金官伽耶國(慶尙南道 金海郡)”¹⁰⁷⁾으로 보았다. 그리고 高橋庄次는 『日本書紀』 應神天皇 14年條에 反新羅 감정이 두드러진 것을 들어 백제계¹⁰⁸⁾로 보았다.

이처럼 秦氏에 대하여는 漢의 귀화인으로 보는 설, 백제계로 보는 설, 신라계로 보는 설, 그리고 井上秀雄처럼 秦氏의 出自을 바다에 접한 金官伽耶國(慶尙南道 金海郡)으로 보는 설들이 있다. 백제계로 보는 설은 『日本書紀』의 기록 분석과, 勝氏는 진씨의 配下에 속하는 部民이라고 일컬어지는데 『新撰姓氏錄』의 山城國諸蕃에 ‘勝 上勝同祖 百濟國人 多利須須之後也’라고 한 기록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또 신라계로 본 설과 금관가야로 본 설은 고고학적인 측면을 중시하고 있다. 이로 보면 秦氏를 漢系 보다는 韓系로 보는 설이 유력하다. 秦氏에 대하여는 필자도 부분적으로 언급한 바¹⁰⁹⁾가 있는데 일단 백제계로 보고자 한다. 그의 작품으로는 『懷風藻』에 ‘五言 與朝主人 一首(26)’, ‘五言 在唐憶本鄉 一絶(27)’ 2수가 있다.

105) 大系 『懷風藻』, pp.96~97.

106) 大系 『懷風藻』, pp.509.

107) 井上秀雄, 『渡來人の系譜』, 『日本神話と朝鮮 講座 日本神話』9(有精堂, 1977), pp. 70-71.

108) 高橋庄次, 앞의 논문, p.45.

109) 李妍淑, 『萬葉集』의 韓衣·高麗錦(1), 『東義論集』 21집(동의대학교, 1994).

• 石上朝臣乙麻呂(이소노카미노아소미오토마로)

左大臣石上朝臣麻呂의 第三子로 神龜 원년(724) 2월 從五位下¹¹⁰⁾였다. 物部氏의 直系라고 하는 石上氏가 大化 以後 번성하여 그 명맥을 유지한 것은 推古朝 당시의 정세와 관계가 있는데¹¹¹⁾ 中西 進은

欽明 15년 12월紀에는 百濟 救援軍의 한 사람에 物部莫奇委沙奇라는 이름이 보이며 筑紫인이라고 하므로 일본에 있어서의 그들의 거주지는 筑紫이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神龜 元年 5월의 例의 渡來氏族 賜姓 속에 物部用善이 物部射園連을 받고 있는 것은 그들의 후손임이 틀림없다.¹¹²⁾

고 하였다. 백제계이다. 그의 작품은 『懷風藻』에 ‘飄寓南荒贈在京故友(115)’, ‘贈掾公之遷任入京(116)’, ‘贈旧識 (117)’, ‘秋夜閨情(118)’ 4수가 전한다.

• 石上朝臣宅嗣

같은 石上姓이므로 백제계로 보고자 한다. 그의 작품은 『經國集』 卷第一에 ‘大納言贈從二位石上朝臣宅嗣小山賦一首’가 전한다.

• 釋智藏(샤크지조우)

小序에

智藏師者 俗姓禾田氏 淡海帝時 遺學唐國 時吳越之間 有高學尼 法師就尼受業學業 穎秀 太皇天皇(持統帝)世, 師向本朝 同伴登陸 曝涼經書 法師開襟 對風曰 我亦曝涼經典之奧義 衆皆嗤笑以爲妖言 臨於試業 辭義峻遠 音詞雅麗 應對如流 皆屈服莫不驚駭 帝嘉之 拜僧正¹¹³⁾

이라고 하였다. 小島憲之는 “俗姓禾田氏, 天智부처 持統 무렵까지의 사람. 近江朝 무렵 唐에 유학하고, 持統때에 歸朝하여 三藏을 전했다. 僧正이 되고, 73세로 사망.”¹¹⁴⁾이라고 하였다. 山本信三은

110) 大系 『懷風藻』, p.506.

111) 日本古典文學大系 『日本書紀』 上(岩波書店, 1981) 補注 3-16, p.580.

112) 中西 進, 앞의 논문, p.108.

113) 大系 『懷風藻』, p.79.

114) 大系 『懷風藻』, pp.508-509.

智藏은 고려의 僧, 福亮이 세속에 있을 때의 자식이다. 이 福亮은 일본에 건너와, 당시의 천자로부터 僧正을 임명되어 두터운 대우를 받았다. 그로 이루어 생각하던 智藏도 朝鮮系의 사람이다.¹¹⁵⁾

라고 하였다. 무엇에 근거하여 고려의 승으로 보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런데 『元亨釋書』에 “僧智藏 吳國人 福亮法師俗時子也 謁嘉祥受三論微旨 入此土居法隆寺 盛唱空宗 自鳳元年 爲僧正 道慈智光皆藏之徒也”라고 하였고, 同書便蒙에도 “釋智藏 吳國人 福亮法師俗時子也...天武皇帝二年 春二月 天皇即位 沙門智藏爲僧正”이라고¹¹⁶⁾ 하였으므로 이에 의한 추정인 듯하다. 그러나 일본의 여러 문헌에서 吳國이 고구려가 아니라 백제를 가리키고 있음과 俗姓이 禾田氏로 秦씨임을 생각하면 백제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의 작품은 『懷風藻』에 ‘翫花鶯(8)’, ‘秋日言志(9)’ 2수가 전한다.

• 石川朝臣石足(이시카와노아소미이와타리)

天智天皇 6년(667)부터 天平 원년(729)까지 생존하였던¹¹⁷⁾ 사람이다. 『万葉集』에 石川朝臣年足, 石川朝臣老夫, 石川朝臣水通, 石川朝臣足人, 石川朝臣廣成 등의 작가명이 보인다. 그런데 『新撰姓氏錄』을 보면 石川氏は 蘇我氏와 同祖이다. 中西 進은 蘇我氏를 백제계로 보았고¹¹⁸⁾ 門協禎二는 蘇我氏를 5세기 말에 백제에서 도래한 木笥滿致와 동일 인물일 것이라고 논증¹¹⁹⁾하였다.

그렇다면 石川氏は 蘇我氏의 후손인 셈인데 蘇我의 조상은 백제로부터 일본에 건너간 蘇我滿智라고 한다면 石川氏は 백제계가 된다. ‘蘇我石川宿禰’의 石川과도 관계가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의 작품은 『懷風藻』에 ‘春苑 應詔 (40)’ 1수가 전한다.

• 守部連大隅(모리베노라지오호스미)

小島憲之는 ‘舊姓, 鍛冶造 文武天皇 4년(700) 刑部親王・藤原不比等 등과

115) 山本信三, 『懷風藻に見えたる日鮮關係の詩詞』, p.68.

116) 澤田總清, 앞의 책, p.61에서 재인용.

117) 大系 『懷風藻』, p.505.

118) 中西 進, 앞의 논문, p.109.

119) 李進熙, 『日本文化と朝鮮』, NHK ブックス 359(日本放送出版協會, 1981), p.52.

함께 律令撰定에 참여하였는데, 그때 追大壹. 養老 4년(720) 정월 從五位上¹²⁰⁾이라고 하였고, 澤田總清은 “養老中에 越智廣江, 背奈行文 등 十餘人과 학문이 뛰어났음으로 인해 師範이 되어 상을 받았다.”¹²¹⁾고 하였다. 連姓이어 도왜인임을 알 수 있는데 越智廣江, 背奈行文 등 十餘人과 학문이 뛰어났음으로 인해 師範이 되어 상을 받았다고 한 것으로 보면 백제계라 추정이 된다. 그의 작품은 『懷風藻』에 ‘五言 侍宴 一首(78)’가 1수 전한다.

• 塩屋連古麻呂(시오야노프라지코마로)

小島憲之는 “養老 5년(721) 정월, 東宮(聖武)에 侍하였는데, 그때 從七位下. 同 6년 2월, 律令撰修의 공으로 田 5町을 받았다. 天智 11년(739) 정월 外從五位下.”¹²²⁾라고 하였다. 『新撰姓氏錄』河內國皇別에 “塩屋連 同上 日本紀漏”¹²³⁾라 하였다. 그런데 그 앞의 的臣은 ‘道守朝臣同祖’인데 이 道守朝臣은 波多朝臣同祖라고 하였다. 또 『新撰姓氏錄』大和國諸蕃에서는 “波多造 出自百濟國人佐布利智使主也”¹²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백제계가 될 것이다. 뒤에서 살필 仲科善雄이 菅野朝臣(百濟國都慕王 10세손 貴首王의 후예)과 동조이며 塩君의 孫 宇志의 후예(『新撰姓氏錄』, 右京諸蕃 下)라고 한 기록을 생각하면 塩君과 같은 族姓으로 백제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懷風藻』에 ‘春日於左僕射長屋王宅宴(106)’ 1수가 전한다.

• 伊支連古麻呂(이키노프라지코마로)

小島憲之는 “伊吉·雪이라고도. 귀화인계의 出身. 大寶 2년(702)의 제7차 遣唐使를 따라 渡唐(釋道慈·山上憶良등도 동행), 慶雲 4년(707) 5월 歸朝. 功으로 綿, 絁, 緞, 穀을 받았는데, 이 때 從八位下. 和銅6년(713) 5월 從五位下”¹²⁵⁾라고 하였다. 雪氏와 같은 것이라고 하였는데 『万葉集』에 雪連宅麻呂(유키노

120) 大系 『懷風藻』, p.511.

121) 澤田總清, 앞의 책, p.377.

122) 大系 『懷風藻』, p.508.

123) 佐伯有清, 앞의 책, p.199.

124) 佐伯有清, 위의 책, p.313.

125) 大系 『懷風藻』, p.505.

므라지야카마로)가 있다. 『新撰姓氏錄』左京諸蕃上과 右京諸蕃上에서는 모두 “伊吉連 出自長安人劉家楊雍也”¹²⁶⁾라고 하여 중국계로 보고 있다. 그런데 天平 8년(736)의 新羅使人 중 少判官의 대부분이 백제계인데 구태여 唐系 도래인을 데리고 갈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그리고 壹岐는 한국의 도래인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데 雪連宅麻呂는 壹岐와 관계있는 점 등을 생각하면 雪連宅麻呂는 백제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의 작품은 『懷風藻』에 ‘五言 賀五八年宴一首(107)’가 전한다.

• 田邊百枝(타나베노모모에)

山本信三은 “万葉集에 田部櫟子の 노래가 실려 있다. 田名部, 田邊, 모두 タナベ로 歸化人の 후예이다. 史라고 하는 姓도 대개 三韓人에게 내린 것이다.”¹²⁷⁾라고 하였다. 『万葉集』에 田邊福麻呂, 田邊史眞上, 田邊秋庭, 田部忌寸櫟子 등이 있는데 上田正昭는 “田邊史氏は「弘仁私記」序와 「新撰姓氏錄」(右京諸蕃) 등에서 말하는 것처럼, 백제계의 도래씨족이었다.”¹²⁸⁾라고 하여 백제계로 보았다. 高橋庄次도 田邊秋庭을

田邊秋庭의 “田邊氏”는 『姓氏錄』의 左京皇別下와 右京皇別下에 「田邊史」의 氏姓으로 보이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또 하나 右京諸蕃上에도 「田邊史 出自漢王之後 知惣也」라고 하였으며 佐伯有清은 이 조에 田邊秋庭을 例示하고 있다. 佐伯은 同條의 漢王에 대하여 「韓王의 뜻으로 百濟王의 뜻인가」라고 한다. 또 知惣에 대해서는 『續紀』延暦9년 7월 17일조에 「百濟國貴須王(中略) 其孫辰孫王 一名智宗王」이라고 하였고 『姓氏錄』(河内國諸蕃)의 「岡原連」의 條에는 「出自百濟國辰斯王子知宗也」라고 한 것을 들어 백제의 貴須王의 孫인 智宗王과 백제의 辰斯王의 자인 知宗, 및 漢王(韓王)의 후예인 知惣은 모두 동일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田邊秋庭은 백제계의 氏族이었던 것이 된다.¹²⁹⁾

고 하였다. 田邊은 백제계이므로 田邊百枝도 역시 백제계가 되는 것이다. 그의 작품은 『懷風藻』에 ‘五言 春苑 應詔 一首(38)’ 1수가 전한다.

126) 佐伯有清, 앞의 책, p.281, p.293.

127) 山本信三, 「懷風藻に見えたる日鮮關係の詩詞」, p.70.

128) 上田正昭, 앞의 논문, p.31.

129) 高橋庄次, 앞의 논문, pp.46-47.

• 調忌寸古麻呂(츠키노이미카코마로)

小島憲之는 “귀화인계 사람. 養老 5년(721) 정월, 학업의 사범자로서 純·糸·布·緞 등을 받았는데 그때 明經第二博士 正七位上”¹³⁰⁾이라고 하였다. 『新撰姓氏錄』左京諸蕃下の 調連에 “水海連同祖 百濟國 努理使主之後也 譽田天皇(諡應神) 御世歸化(中略) 弘計天皇(諡顯宗) 御世 蠶織獻純絹之樣 仍賜調首姓”¹³¹⁾이라고 하였듯이 백제계이다. 그의 작품은 『懷風藻』에 ‘五言 初秋於長王宅宴新羅客 一首(62)’ 1수가 전한다.

• 調忌寸老人(츠키노이미키오키나)

調忌寸老人에 대해 小島憲之는 “忌寸은 伊美吉이라고도. 귀화인계의 사람. 持統天皇 3년(689) 6월 撰善言司, 그때 勤廣肆. 大寶 원년(701) 8월, 律令撰定の 功으로 正五位上”¹³²⁾이라고 하였고, 山本信三은 “應神天皇 때 努理使主라는 사람이 백제로부터 와서 일본에 귀화하였다. (그는 我國養蠶의 시조) 그 증손 彌耜日는 顯宗天皇 때 등용되어 調首가 된 爾來謂를 姓으로 하였다.”¹³³⁾고 하여 백제계로 보았다. 調忌寸古麻呂(츠키노이미카코마로)와 마찬가지로 백제계이다. 『懷風藻』에 ‘五言 三月三日 應詔 一首(28)’ 1수가 전한다.

• 仲科善雄

小島憲之는 “中科善雄·仲科吉雄이라고도. 菅野朝臣(百濟國都慕王 10세손 貴首王의 후예)과 동조. 塩君의 孫 宇志의 후예(新撰姓氏錄, 右京諸蕃下). 延暦 18년(799) 大外記從五 位下. 同19년 정월 伊予介. 弘仁 5년(814) 9월 東宮學士”¹³⁴⁾라고 하였다. 『新撰姓氏錄』右京諸蕃下に “中科宿禰 菅野朝臣同祖 鹽君 孫宇志之後也”¹³⁵⁾라 하였다. 그런데 右京諸蕃下に “菅野朝臣 出自百濟國都慕王十世孫貴首王也”¹³⁶⁾라 하였으므로 백제계임을 알 수 있다. 『文華秀麗集』에

130) 大系 『懷風藻』, p.509.

131) 佐伯有清, 앞의 책, p.286.

132) 大系 『懷風藻』, p.509.

133) 山本信三, 『懷風藻に見えたる日鮮關係の詩詞』, p.69.

134) 大系 『懷風藻』, p.516.

135) 佐伯有清, 앞의 책, pp.298-299.

136) 佐伯有清, 위의 책, p.298.

‘奉和秋夜書懷之作 一首(48)’ 1수, 그리고 『經國集』 卷第十一(詩十)에 ‘從五位上行攝津介中科宿禰善雄一首(雜詠一)’가 전한다.

・中臣朝臣大島(나카토미노아소미오오시마)

小島憲之는 “中臣朝臣人足과 同族인가? 天武天皇 10년(682) 3월, 川島皇子・忍壁皇子 등과 함께, 帝紀 및 上古의 諸事を 筆錄하였다”¹³⁷⁾고 하였다. 中西 進은 杉山二郎・梅原猛・田邊昭三諸氏의 「藤原鎌足」을 들어 “境部臣, 林臣을 포함한 蘇我一族이 渡來를 둘러싸고 논의되고 있는 昨今이다. 심지어는 中臣조차 도래계가 아닐까고도 한다.”¹³⁸⁾고 하였다.

그런데 日本古典文學大系 『万葉集』에서 “壹岐는 卜部를 내는 곳이므로, 宅麿도 卜일에 종사하기 위해 일행에 참가한 것이라고 말해진다. 그렇다고도 생각되지만 의문이 있다. 壹岐島에 성행한, 卜占을 관장한 壹岐氏는 姓이 直이고, 貞觀 6년에 宿禰를 받았으나 連姓은 아니다. 姓氏錄右京神別에 「天兒屋命十一世孫雷大臣之家也」라고 하였다. 中臣氏와 遠祖가 같고 神事を 맡아도 부자연스럽지 않다.”¹³⁹⁾ 라고 하였다. 壹岐氏 즉 雪氏は 中臣氏와 遠祖가 같다고 하였는데 앞에서도 살폈듯이 雪連宅麻呂가 백제계라면 이 中臣氏도 百濟系가 될 것이다. 『懷風藻』에 ‘詠孤松(12)’, ‘山齋(13)’ 2수가 전한다.

・中臣朝臣人足(나카토미노아소미히토타리)

慶雲 4년(707) 정월 從五位下였으며 和銅 원년(708) 9월 造平城宮司次官을 지냈는데¹⁴⁰⁾ 中臣朝臣大島와 마찬가지로 백제계일 것이다. 『懷風藻』에 ‘遊吉野宮 二首(45, 46)’ 2수가 전한다.

・春日藏老(카스가노쿠라비토오유)

小島憲之는 “원래 中으로 弁紀(弁基라고도)라 하였다. 大寶 원년(701) 3월 遷俗, 성을 春日藏首(倉首・椋首라고도), 名을 老로 받고, 追大壺을 받았다.”¹⁴¹⁾

137) 大系 『懷風藻』, p.510.

138) 中西 進, 앞의 논문, p.112.

139) 日本古典文學大系 『万葉集』4(岩波書店, 1981), p.483.

140) 大系 『懷風藻』, p.510.

141) 大系 『懷風藻』, p.507.

고 하였다. 『万葉集』에 春日長首老라 하여 그의 작품이 보인다. 春日氏는 柿本氏, 栗田氏 등과 같은 本宗인데 柿本氏, 栗田氏가 백제계이므로 春日도 백제계가 된다. 『懷風藻』에 '述懷(59)' 1수가 전한다.

• 下毛野蟲麻呂(시모즈케노무사마로)

養老 4년(720) 정월 從五位下, 養老 5년 정월 從五位上¹⁴²⁾이었다. 『新撰姓氏錄』左京皇別下에 “上毛野朝臣 下毛野朝臣司祖(中略)孫斯羅 謚皇極御世 賜河內山下田 以解文書 爲田邊史 寶字稱德孝謙皇帝天平勝寶二年 改賜上毛公 今上弘仁元年 改賜朝臣姓 續日本紀合”¹⁴³⁾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田邊史는 大學博士 田邊史百枝(타나베노모모에)에서 보았듯이 백제계이므로 下毛野도 백제계가 될 것이다. 『懷風藻』에 '五言 秋日於長王宅宴新羅客 一首(并序 賦得前字)(65)' 1수, 그리고 『經國集』卷第二十(策下)에 '下野虫麻呂對策文二首(策下)'가 전한다.

• 荊助仁(케이조진)

小島憲之는 “傳未詳. 귀화인계. 大寶 4년(704)경, 大宰少典이었던 것 같고(中略) 37세 沒¹⁴⁴⁾이라고 하였다. 출자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新撰姓氏錄』左京諸蕃下를 보면 “香山連 出自百濟國人達率荊員常也”¹⁴⁵⁾라고 하였다. 이로 보면 荊姓은 백제계임을 알 수 있다. 『懷風藻』에 '五言 詠美人 一首(34)' 1수가 전한다.

이상에서 백제계 작가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백제계 작가들은 『懷風藻』에 집약적으로 많이 보이는데 이는 『懷風藻』라는 서명, 찬자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즉, '藻'를 책명으로 사용한 것은 일본에서는 유일한 것이다. 이는 石上乙麻呂의 銜悲藻를 본 딴 것으로 추정되는데¹⁴⁶⁾ 이 石上乙麻呂가 백제계인 것을 보면 더욱더 공감이가는 것이다. 『懷風藻』의 찬자에 대해 淡海三船이

142) 大系 『懷風藻』, p.508.

143) 佐伯有清, 앞의 책, p.168.

144) 大系 『懷風藻』, p.508.

145) 佐伯有清, 앞의 책, p.287.

146) 大系 『懷風藻』 p.6.

라는 설, 葛井廣成으로 보는 설, 石上宅嗣라고 하는 설¹⁴⁷⁾, 그리고 紀清人·高丘河內大倭小東人 등과 같이 『懷風藻』에 작품을 남기지 않는 사람들¹⁴⁸⁾이라는 설 등, 일본에서 다양한 설이 제기되고 있는데 거론되고 있는 자들의 대부분이 백제계라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찬자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懷風藻』라는 서명과 아울러 생각해 볼 때 백제계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리고 新妻利久가, 8세기 중엽 당시 일본 정부는 정부의 허가 없이는 渤海國使와 詩文을 贈答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이것은 渤海國使에게 보낸 시가 조소를 받을 염려가 있었음이 틀림이 없으며, 또한 그것에 의해 일본의 문화 정도가 발해의 그것보다 下位라고 평가되는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¹⁴⁹⁾이라고는 급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그보다 앞선 시기의 사람들의 시를 모은 『懷風藻』의 대부분의 작가들은 한시문에 능숙한 백제계 사람들이라는 것이 더욱 확신이다. 또 『懷風藻』에서 신라 사신과 창작한 시들이 '秋日於長王宅宴新羅客'이라는 題詞의 시만 11수 있어 당시의 詩宴이 대단했음을 알 수 있는데 신라사신들의 시는 한 수도 실고 있지 않음은 백제계의 反新羅 감정이 작용하였던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Ⅲ. 결 론

이상으로 일본 상대의 한시집에서 백제·발해 작가를 추출하여 보았다. 현재 이 방면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므로 과감한 하나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万葉集』과 거의 동시대에 편찬된 『懷風藻』의 경우는 일본인 학자들도 논급하고 있듯이 한반도적인 요소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아지므로 한인계, 특히 백제계로 추정되는 姓氏는 모두 포괄하였다. 그러나 『文華秀麗集』·『經國集』의 경우는 편찬 시기가 9세기 초이므로 그 당시 존속

147) 大系 『懷風藻』, pp.6-7.

148) 林 古溪, 「懷風藻 陽春の作・作者と撰者」, 『國語と國文學』(東京大學校, 1948, 6), p.13.

149) 新妻利久, 「渤海國史及日本との國交史の研究」(1969), p.375[崔在錫의 앞의 책 p.347에서 재인용하였음].

한 발해의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백제의 경우는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는 주로 『万葉集』이나 『懷風藻』에 작품이 보이는 작가들로 한정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얻어진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해 작가의 경우는 발해 사신으로 일본에 파견되었던 양태사의 작품이 『經國集』에 2수, 왕효령·석인정의 작품이 『文華秀麗集』에 각각 5수와 1수가 전한다. 그리고 작품은 전하지 않지만 高京秀의 ‘公賜龍顏’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그리고 사신으로 일본에 간 경우는 아니지만 고구려 멸망후 일본에 체류했던 고구려계로 추정되는 작가들의 작품이 있다. 그런데 이 경우의 작가들은 아마도 발해문학 속에 포괄시킬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작가들에는 都良香, 背奈王行文, 桑原廣田, 桑原腹赤, 黃文連備가 있다.

셋째, 백제계 작가의 경우는 총 44명으로 이들의 작품은 『懷風藻』에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經國集』에도 다수 보인다.

넷째, 『懷風藻』의 작가들의 대부분이 백제계임은, 『懷風藻』의 찬자에 대해 일본에서 다양한 설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체로 백제계 사람들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을 보면 찬자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백제계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또 『懷風藻』라는 책명도 일본에서는 유일한 것으로 ‘藻’를 사용한 것은 石上乙麻呂의 『銜悲藻』를 본 딴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石上乙麻呂가 백제계인 것을 보면 더욱더 공감이가는 것이다.

또 『懷風藻』에서 신라 사신과 창화한 시들이 ‘秋日於長王宅宴新羅客’이라는 題詞의 시만 11수 있어 당시의 詩宴이 대단했음을 알 수 있는데 신라사신들의 시는 한 수도 실고 있지 않음은 백제계의 反新羅 감정이 작용하였던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필자가 다룬 작가들 중에서도 혹시 제외되어야 할 작가가 있을 수도 있으며 또한 시대를 고려하여 제외한 작가도 많이 있는데 이들 작가와 작품을 검토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백제계 작가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 분야에 관한 연구자들이 늘어나 세심한 고증을 하여 우리 문학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기를 바란다. 작품분석 작업은 다음으로 미루고자 한다.